

## 하나님의 그릇 (사도행전 9:1-15)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대이다. 이제 일하고 그러는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여전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불과 몇십년전에만 해도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큰 사건들이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시대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사소한 사건들이 끊임없는 것이 세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명결고 연구하기도 하고 중요한 결과도 내놓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고에 불과하고 인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터치는 되지 않는다. 코로나도 그런 사건중 하나이다. 세상에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발전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교회는 이제 많은 영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복음화 선교에 많이 도움이 된다. 활용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지, 아무리 선교와 훈련이라고 해도 비대면으로만 평생 하면 되겠는가? 한 번씩이라도 대면을 하고 가슴이 통하고 감동이 전달되고 그레야지, 평생 죽을때까지 비대면만 하면 되겠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도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리거나 타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예사로 그렇게 하면 그게 사건이 되는 것이다. 결혼을 두 사람이 했는데, 코로나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평생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아이낳고 다 하겠는가? 그러면 예배는 어떤가?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평생 비대면으로 하면 정상적인 열매가 맺히겠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산다. 미국 교회는 영적으로 변두리 교회이지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나라는 중심인데, 교회는 영적으로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변질이 되어가고, 변두리에 있어서 영적 타격이 오면 변두리에 있는 교회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견딘다. 그러나 평소예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자식들부터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 예배도 예배당 밖에 드리는 것과 안에서 드리는 것이 천지차이다. 지금도 예배당 밖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는지 말든지 예배당 밖에서 예배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은혜 50%는 날라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예배를 천천히 온다. 그래서 뒤에 와서 앉는다. 뒤하고 앉고하는 은혜 받는게 완전히 100% 차이가 난다. 이유가 있어서 뒤에 앉는 분들이 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러나 뒤에 앉았기 때문에 뒤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해한다. 나는 예배에 출석을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해한다. 그러나 화면 은혜를 받는 것이다. 대면 은혜는 안된다. 메시지를 받기만 하는 훈련은 그래도 괜찮다. 예배는 전인적인 것이어서 나타나야 한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인간인 우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해한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면 그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리잡기 어렵다. 나는 화면으로 예배드려도 굉장히 은혜가 된다. 나는 예배당 밖에서 예배드려도 말씀 듣고 다 한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렸을때의 은혜 100에 도달안해보면 그것이 정상인줄 안다. 내 혼자만 걱정하는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교회를 강탈했다는 생각이 든다. 성도들 속에서 감각이 살아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명을 가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성경 기록에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시대시대마다 문제가 있었다. 없을수는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답을 한 개 줬다. 그 답으로 그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 코로나가 교회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된 종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말씀은 사도바울이 시대적인 선택을 받는 장면이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

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회복될 뿐 아니라 진짜 전도도 회복되어야 한다.

### 1. 그리스도를 만남

오늘 본문은 시대적인 중 사도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다. 사도바울의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사에서 빠지 못할 중대한 사건이었다. 세상 역사에도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남북전쟁, 미국 역사에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부르는 이 사건도 교회사에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였다. 이 때부터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이후에 집에서 읽어보면 눈 뜨고 바로 나와서 회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우리도 이런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 주신대로 하면 된다.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이미 만났다. 그 만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릇이 되는 비밀이다. 사도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1절을 보면 그가 누구였는지 확실하게 써놨다. 그가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이는대로 죽이려고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셨다. 사도바울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다. 사도바울같은 극적인 만남을 누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날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간증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나는 어느날 영적문제 와서 내가 교회를 직접 찾아갔다. 그 때에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잊겠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사도바울도 그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날을 잊지 못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지속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어디에까지 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까지 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까지 간 것이다. 그 누림과 깊이가 보통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24시를 했다는 뜻인데,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것이다. 24시간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보좌의 놀라운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237의 빛이 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인생이다. 사도바울이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이렇게 되었다. 참 놀랍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전문가였다. 다른 사도들도 그리스도 다 알았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 사도바울 그리스도 진짜 전문가이다. 유독 사도바울의 서신에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난다. 그리고 항상 있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난다. 어떨때는 탄복하게 된다.

내가 한국의 시인중에 김소월이라는 분이 있다. 어느날, 오래된 일인데, 뭘 하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의 시를 보게 되었다. 시를 읽는데, 참 정말로 이 사람은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쪽 나가다가 나중에 토씨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역전시켜버린다. 그래서 진짜 그날 그분 시를 한 7-8편 봤는데, 깜짝 놀랐다. 그 전에 시를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들긴 들었다. 그런데 사도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딱 필요할때마다 그리스도가 딱 나온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딱 말해서 전체를 역전시켜버린다. 항상 있고, 필요할때마다 나타난다. 에베소서 1:1-14절에는 총 14절에 그리스도가 12번 이상 쓰였다.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밖에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

리스도 밖에는 하나님도 없다. 능력, 권세, 아무것도 없다. 구원, 영생,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시공간 초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어떻게 우리가 237의 빛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만나는 길만이 아니라 응답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없이 어디서 응답을 받는다? 아무것도 안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 언약으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사도바울의 출발이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질문해보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가졌는가? 믿기는 다 믿는다. 그런데 나는 만났나? 질문해보기 바란다. 24,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하는데 24의 축복을 주시겠는가? 237의 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이다.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출발로 해서 237의 빛이 되었다. 그는 죽었지만 그에게서 전해진 250년동안 로마의 빛이 되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미국 남미 렘넬트 다민족, 이 놀라운 언약을 두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 다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에 계속 이 언약이 살아나는 것이다.

## 2. 사명

바울은 그날 평생의 사명을 함께 받았다.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운명을 해결한 직후 사명을 받았다. 평생을 두고 절대 잊을수 없는 하나님의 천명이었다.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두고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다. 사명, 중요하다. 일이 아니다. 언약이다. 일이 아니다. 사명은 우리의 권세이다. 뿐만 아니라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중요한 이유가 사명이다. 사명 없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라면 사명은 구체적인 것이다. 실질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전략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 사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이다. 나를 두고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전략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명을 사도바울이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 미국, 남미, 렘넬트, 다민족, 이것을 통하여 미국 끝까지 남미끝까지. 우리의 사명이요 임마누엘남가주교회 모든 성도의 천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237 치유 서명하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는 혹시 이 시대 로마, 미국에 복음을 전달하도록 선택을 받은 교회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우리는 혹시 이 시대, 로마인 미국에 이 복음과 전도를 전달할 교회로 선택받았을수도 있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분명 100년의 응답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조짐이 서서히 보이기 때문에 엔세나다 집회를 두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혹시 이렇게 하여 이 시대의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을 것이다. 온 교회, 모든 가문의 영광일 것이다. 안그러나?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 사실일까? 질문도 드려보라. 분명히 시대적인 복음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실은 복음과 같은 복음인데, 미국 교회는 쓰러져가고 무너져 가고, 오히려 전 세계에 사단의 영향의 원인이 되고, 이상한 신학은 전부 미국에서 다 나왔다. 인간 중심의 신학, 전부 미국에서 다 나왔다. 머리가 좋아서 논리가 아주 정연하다. 신앙이 바른 사람은 그런 것 선택 안한다. 그 비슷한 사람은 지식과 논리에 넘어간다. 그게 미국 교회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미국에 불렀다. 하나님의 이유가 없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하다. 사명이 뭐라고 했나? 응답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할 이유가 뭐냐니까 내게 있는 사명이다. 근본적으로 응답하실 이유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미국에 대하여 사명이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남미 렘넬트 다민족이 내게는 뭐냐? 이런 중대한 것을 잡고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입으로라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명이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소원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다. 답한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가? 수많은 약속 주셨다. 조건 하나 딱 걸었다. 니가 내가 말한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니가 만일 그렇게 하면 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니 아이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의 땅의 토지 소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니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니가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아니면 니가 어떻게 살겠는가? 조건은 하나있다. 니가 말하는 그 말을 지키면 내가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사도바울을 왜 불렀는가? 이방인 선교, 선교의 시작,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니가 만일 내가 하는 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지키면 니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 너는 항상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늘 위에만 있지 아래에 내려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시대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수 있겠는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라. 코로나 필요 없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아라. 사명 중요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이다. 그건 일이 아니다. 능력이요 권세이다. 이 사명으로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다. 그게 사명이다.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맘속에 깊이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릇들이다. 진짜이다. 지금 나 혼자서 그렇다. 하나님이 진짜 미국과 남미에 진짜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응답의 차원이 다르다. 이번엔 RU팀들이 엔세나다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톨루카로 왔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놀랐다고 한다. 너무 성도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말씀 중심이고 진실했다는 것이다.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한 삼년 쉬었다. 그때는 논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성경공부했다. 전부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심되는 인물들만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응답이 달라졌다. 걱정은 하나도 안된다.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안된다. 미국의 대단한 PHD 가진 목사가 와도 걱정 안된다. 우리가 가진 콘텐츠가 성경에 바르기 때문에. 성경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말하는 전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영어가 안되서라도 신학은 말도 못한다. 영어 잘한다 해도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학교서 하면 된다. 렘넬트, 청년 여러분, 앞으로 사역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언약으로 잡으라. 그리고 안되어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이번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은혜받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시 한번 언약이 되어 응답의 문이 열리기 바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 바라고 정말 마음에 딱 담으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니가 지켜 행하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언약으로 잡고 오늘부터 새출발하기 바란다.